

살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입니다!

다시 한 번 2015 년이 힘차게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정과 구정이 있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정을 맞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지지부진 했던 목록들을 구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고삐를 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구정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탄자니아에서도 고국을 떠나 명절이면 고국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교민들을 위해 한인회에서 설날 맞이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참석하여 교제를 나누고 행운권 추첨으로 커피 한 봉지도 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에 참 감사합니다. 해외에 나와 있어 보니 내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동양인을 보고 중국사람으로 불렀던 아이들도 3 년이 지난 지금은 '코레아, 코레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대한민국 또한 알려진다고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독일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카이 크라우제'는 새로운 지도를 그려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흔들여 놓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으로, 그 크기는 모든 이의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유럽의 면적을 몽땅 합해도 아프리카보다 작다"라고 크라우제는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파송되고 파견된 선교사들과 NGO 종사자들이 오늘도 아프리카 곳곳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 드리며 2015 년 2 월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이름을 불러 주세요, 카세리니!

쿤두치 채석장 가정방문을 통해 9살 소녀 '카세리니'를 만났습니다. '카세리니'의 아버지는 2009년도에 가출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세리니'의 어머니는 외동딸을 홀로 키우기 위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하루에 2,000원~3,000원의 수입으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진흙 집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어 '카세리니'는 9살이 되도록 한 번도 학교에 들어가 질 못해 글을 쓰고 읽을 줄 모릅니다.

호프클래스 2기 신청이 마감 되었지만 오늘 소중한 만남의 선물로 '카세리니'를 호프클래스에서 교육 시켜 초등학교에 보내고자 합니다.

이 예쁜 소녀의 손을 잡아주실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3일 페이스 북에 사연을 올렸는데 아직 결연자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카세리니를 기억해 주시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카세리니 외에도 27명의 아이들이 결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Our Children, Our Hope!

[1 대 1 아동결연 문의]  
 [한국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정민경 대리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김고운 실장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786-740-003 변창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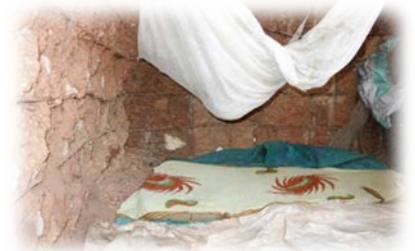
다일공동체 : www.dail.org



<카세리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밝은 얼굴입니다>



<흙 바닥에서 잠을 청합니다>



<두 모녀를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 호프클래스 2기를 위한 힘찬 발걸음

18명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7명이 남아 웅한 밥퍼센터에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 왔습니다.

바로 호프클래스 2기에 지원하고 인터뷰를 마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2기에는 36명의 아이들이 신청을 하였는데요, 역시나 주변에 학교를 중도 포기했거나 아예 다니지 못한 9세~14세의 소년, 소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호프클래스에 자녀들을 보내 달라고 호소 했고, 호프클래스의 설립 취지와 목표, 1기의 결과 등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매우 좋아하며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니 일하는 저희들도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모임 후에는 천사날개 벽화 앞에서 가족 사진도 찰칵!

3월 2일부터 새롭게 시작 될 호프클래스 2기를 위해서, 또한 아직 공부가 부족하여 남아 있는 1기생 7명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의 초석입니다!



<호프클래스 2기 학부모 미팅>



<단체 사진은 필수!>



<아빠와 함께 천사가 되어봅니다>



<아빠와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 자원봉사로 아름다워지는 밥퍼센터!

쿤두치 밥퍼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한결 같이 이 벽화를 누가 그렸냐고 물어보십니다.

바로 4주간의 자원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송승민 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서 구슬 땀을 흘렸습니다. 채승찬 자원봉사자가 스케치를 하고 미쳐 완성하지 못한 천사날개를 멋지게 완성하였고 전공하고 있는 화학 과목으로 호프클래스 아이들과 마핑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험 강의를, 밥퍼 센터 화장실에 센스 있는 그림으로 남녀 구분을 지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송승민 학생은 한국으로 떠나고 없지만 흘린 땀방울과 벽화와 그림은 밥퍼센터를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기억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역량을 쏟은 송승민 자원봉사자가 최고야!

쿤두치 밥퍼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인해 한군데, 두군데 싹 아름답게 채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지 아니하고 재능기부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셔 오늘도 세상은 더욱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날개가 완성 중입니다>



<완성된 천사날개 앞에서 호프클래스 아이들과 함께!>



<face painting 을 받는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we are so happy!>

● 김하라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다일공동체 분원에 도착한 최초의 단원!

김하라 간사님이 최일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뜨거운 사랑으로 탄자니아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힘차게 출발!>

도착하자마자 숙소에서 짐만 풀고 쿤두치 밥퍼센터로 달려와 사진으로만 보았던 장소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연이어 이어지는 밥퍼에서 정성껏 포장한 빵과 우유를 사랑으로 전달합니다.



<빵과 우유를 포장합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날씨를 더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덮으며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밥으로 전하며 호프클래스와 아동결연으로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김하라 간사님을 계속 기억해 주시고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라 간사님은 캄보디아에서 도시 빈민들, 특히 아이들이 매춘을 하고 마약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대학에서 도시행정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제는 배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봉사의 시간!>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역류성 식도염과 장염에 걸려서 처방 받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출발 때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호프클래스 1기 아동 '아라파티'와 함께>

**기도 제목**

1.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2. 초등학교에 들어간 호프클래스 1 기 16 명의 학생들이 적응 잘하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다일호프클래스 1 기 7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잘 들어가게 지혜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2 기에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4. 호프클래스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 주님 마음 허락하소서.
5. 밥퍼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제자 되게 하옵소서.
6. 질서 정연하고 안전하게 밥퍼 배식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7. 아동 결연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만나게 하소서
8. 꿈퍼 비전센터가 건축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소서.
9. 꿈퍼 부지와 밥퍼센터 옆 공터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확보되게 하옵소서.
10. 2015 년, 주의 사명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11. 구입한 차량이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하소서.
12. 김하라 간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맡은 사명 날마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변창재 : dail8004@gmail.com

Cell : +255 786 740 003

이현신 : hslee0304@hotmail.com

Cell : +255 687 431 623

후원계좌 : 467701-01-233951 (국민은행)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tanzaniadail>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 [www.dail.org](http://www.dail.org)